

# 노사정,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

##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등 10대 논의과제 제안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 8월 23일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이윤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 사측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사립대 의료원장협의회, 국립대 병원장협의회 대표,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및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식은 보건의료분야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별 차원의 최초 노사정 일자리 공동선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논의과제를 발표하고,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각 단체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에 직접 서명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식이 열렸다.

공동선언문에는 노동계·병원계·정부 모두 보건의료 일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00여개 병원들이 참여했다.

10대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취약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근로안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 방안 △인력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사업으로 보건산업 육성.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윤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유발 계수가 높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고,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돼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분야이기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10대 논의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 윤종필 국회의원 사무소 개소식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인 윤종필 국회의원의 사무소 개소식이 8월 28일 열렸다. 사무소는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 푸름이아일랜드 스퀘어 305호에 마련됐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지난 4월 분당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분당 지역주민들을 활발히 만나며 지역의 여러 현안을 챙기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여성장관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교장을 지냈으며, 대한간호협회 감사 및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와 신상진(성남 중원구 당협위원장), 홍

문종, 김성태, 안상수, 김명연, 이종배, 송석준, 강석진, 이양수, 이종명, 김승희, 전희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 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이우현 국회의원 등이 축하영사를 보내왔다.

이어 윤종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담은 동영상 시청했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분당갑 사무소는 지역주민 누구나 지역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 후에는 김종석 국회의원이 현정부 경제정책의 현황 진단 주제로 경제특강을 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17년 면허신고 대상

- 2013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2년 또는 2013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4년 면허 취득자
- 2014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신고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면허신고 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 2017년 신규 면허자의 경우 2020년이 면허 최초신고 해가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해인 2017년에는 면허신고할 수가 없으며, 면허신고 확인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신규 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 이수 대신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KNA 면허신고센터

-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lic.koreanurse.or.kr)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클릭
- 콜센터 ☎ 1644-1755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 자살유가족 정신적·신체적 고통 심각

### 가족관계 악화 심해 ... 자살 발생 후 3개월~1년 가장 힘들어

매년 8만명에 이르는 자살유가족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심각해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인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사망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과거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등에 대해 죄책감과 분노,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7배, 자살위험은 8.3배 이상 높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자살유가족들은 가족 간 대화단절과 상호비난 등 가족관계 악화, 대인관계 단절 또는 회피, 업무효율성 저하 등 직업 수행에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발생 후 3개월~1년이 가장 힘들고, 가족 내 분위기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사고 발생 후 우울·의욕저하, 불면, 불안, 분노,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로 나타났다.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을 진단받는 경우도 많았다. 호흡곤란·두근거림, 두통, 근육통·오통·전신피로, 눈피로·이명, 소화불량·복통 등 신체적 어려움도 경험했다.

자살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된 것은 '유가족 모임'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친척,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순이었다. 경제적 지원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가족 순이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정신건강 변화, 가족관계 변화, 직업·

## 근거기반간호학회 '근거의 활용' 심화연수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회장·은영)는 '근거의 활용: GRADE 접근법' 심화연수과정을 8월 25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근거평가 및 활용' '비평적 평가: Risk of Bias' 'GRADE 방법론' '근거수준 평가 및 결과 요약표 생성' '권고안 작성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은영 회장은 "근거기반간호를

경제적 변화 순이었다. 사고 직후 3개월까지는 장애·이사 등 행정처리, 3개월 이후부터는 직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무엇보다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원(최대



임상현장에서 적용하고 확산시키는 데 이번 연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중 상담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

## 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 '항암제 임상시험' 학술대회

한국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회장·정인숙)는 하계 학술대회를 '항암제 임상시험의 최신 동향과 연구코디네이터의 역할' 주제로 8월 25일 개최했다.

임상시험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의 임상시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수행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암제의 종류와 작용기전' '암 발생 기전과 분류' '항암제 반응평가' '항암제 1상 임상시험' '항암



제 2-3상 임상시험' 등 주제로 강의 진행됐다. 정인숙 회장은 "최신 연구동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지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